

# 風水의 局面과 實存空間이 갖는 空間的 意味에 關한 研究

A Study on the Spatial Meaning of Correlation in M. Heidegger's Existential Space and Situation of Fengshui

조영배\* / Cho, Young-Bae

## Abstract

The concept of "place" has recently been given much attention by those who discuss problems of urban design and architecture. And we used the term "existential space" denote our concept or image of the environment. To create new space means to implement existential patterns in a given environment. So, this thesis explores the spatial meaning of correlation in Heidegger's Existential Space and Situation of Fengshui.

키워드 : 장소성, 현존재, 풍수, 국면

## 1. 서론

### 1.1. 연구의 목적

建築의 本質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은 건축에 대한 가치관을 어디에 더 비중을 두는지에 대한 입장으로 달라질 수 있다. 서양건축에서 건축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 철학가는 많이 있지만 실존공간의 철학적 기반을 제공한 하이데거(M. Heidegger)는 그 哲學理論의 난해함 때문에 아직도 그의 철학이론에 대한 정확한 독해가 불가능한 형편이다.

다만 그의 철학에서 언급하고 있는 건축공간관은 슐츠(C. N. Schulz)에 의해서 정리되어, 서양 건축의 공간관 내지는 공간사상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생각으로 서구건축에서 理想的인 건축공간으로 생각하는 하이데거의 실존공간과 우리의 전통공간 중에서 局面에 의해 形成되는 穴의 공간을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와 서양의 공간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고 궁극적으로 指向하고자 하는 바를 비교해 보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 1.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하이데거가 자신의 철학에서 언급하고 있는 공간은 건축에서 말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공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논리 틀인 세계-내-존재로서의 인간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틀로서 제시되었으며, 문맥의 다중성으로 인해서 정확한 독해가 힘들

고 건축에 대한 적용이 어려웠던 것이다. 이러한 하이데거의 철학적 생각을 슐츠(C. N. Schulz)가 건축적인 의미와 공간체계로 소개했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하이데거가 말하는 세계-내-존재내의 인간과 상호 교섭하는 공간인 실존공간에 관한 내용은 기본적인 문헌고찰로 살펴 보며, 주로 슐츠가 언급하고 있는 실존공간의 구성요소와 분석틀로 풍수지리의 국면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연구대상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위해 양자를 동일한 틀로 분석했으며 공간에 관련된 논문의 성격상 정량적이거나 계량화된 해석의 결과가 아니라 그 내용이 갖는 의미에 접근하여, 왜 그러한 것이 이상적 공간의 상징이 되었나를 검토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풍수지리의 범위를 좁혀 사신에 의해 이루어지는 국면만을 대상을 삼고 국면에서 나타나는 공간과 슐츠의 실존적 공간이 지향하는 바를 알아보는데 있다.

## 2. 실존공간에 대한 고찰

### 2.1. 하이데거 철학에서의 실존 공간

하이데거 철학의 기본적인 문제는 존재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궁극적인 문제로부터 시작되어 진다. 즉 "存在(sein)란 무엇인가"라는 명제와 모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의 "있음", 즉 어떻게 있는가라는 존재방식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것이 하이데거가 얘기하고 있는 존재론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하이데거의 실존공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말하는 世界性을 먼저 파악해야 하는데 그가 말하는 현존재는 인간을 의미하며, 그

\* 정회원, 인하공업전문대학 건축계열 전임강사, 공학박사

현존재가 세계-내-존재(In-der-Weit-sein)에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하이데거의 存在論的 의미에서 “내”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세계와 친밀하다는 느낌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다른 말로는 세계를 ‘우리의 가정’으로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존재가 세계안에 있다고 할 때의 “내-존재”는 현존재가 사물의 존재방식처럼 세계라는 공간속에 어떤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내-존재”는 현존재의 본질적인 존재구조로서 우선 형식적인 의미에서, -에 거주한다, -과 친숙하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세계-내-존재로서의 현존재의 존재가 세계 내부적 존재자와 타자에 각각 교섭함을 뜻한다. 현존재는 이러한 교섭에서 사물들의 존재방식과 이해하며 관계한다.

하이데거가 말하는 공간은 세계-내-존재하는 현존재가 모든 의미 있는 사물들과 상호교섭을 통하여 실존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고 있다. 그러한 실존을 통해서 현존재가 소속감과 정체감을 지닌 세계 내 존재로서 살아 갈 수 있는 것이다.

## 2.2. 실존공간에 대한 슈츠(C. N. Schulz)의 해석

슈츠는 자신의 일련의 책, “Meaning and Place”<sup>1)</sup> “Concept of Dwelling”<sup>2)</sup>을 통해서 하이데거가 말하고 있는 실존공간에 대한 건축적 해석을 시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는 인간의 거주(Dwelling)에 대한 언급으로서 하이데거의 실존공간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그가 언급하고 있는 거주공간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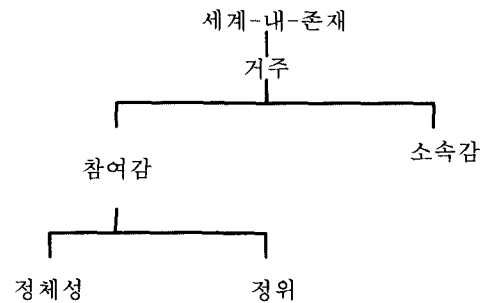
1. 여러 가지의 가능한 삶을 경험하는 것을 뜻하며
2. 다른 사람과의 공유함을 뜻하고
3. 우리자신의 조그만 세계를 갖는 다는 것을 뜻하고 있다.

이러한 거주 개념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가 도입한 이론적 틀은 정체성과 정위이다. 결국 그가 얘기하고 있는 실존공간은 정위와 정체성으로 이루어지며 그러한 두 요소는 구체적인 장소를 만드는 공간과 형태에 의존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러한 거주가 위에서 언급한 요소에 의해 결정되었을 때, 거주는 所屬感과 參與感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하이데거는 인간의 정체성은 사물의 세계와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음으로서 확립될 수 있다고 파악하고 있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사물의 세계와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개념, 事物을 단순한 物性으로만 파악함으로 정체성의 위기가 도래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생각의 기저에는 일종의 과학적 접근이 사물의 존재론적 실체를 위협스럽고 감상적인 추상으로 치부해 버리고 세계를 무의미하고 정량적인 세계로 몰고 간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한 반동으로서 나타난 것이 현상학이다. 현상학은 훗설(H. Husserl)의 사물 그 자체로서(to the thing themselves)라는 관점과 현대의 과학이 존재론적 관점에서 인간의 구체적인 삶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는 인식에서 시작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의 밑바탕에는, 인간은 홀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구조화된 전체의 한 부분으로서 태어난다는 생각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태어날 때 단순히 존재하는 하나의 세계를 갖는다는 메를로 폰티(Merleau Ponty)의 주장은 이와 같은 말의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다.<sup>3)</sup> 따라서 정체성은 사물의 이해를 통해 세계를 얻어내는 것을 뜻한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물의 이해는 아래



<그림 1> 거주를 통한 세계-내-존재로서의 현존재

(under)와 사이(among)에 선다(standing)라는 어원적 의미<sup>4)</sup>를 갖고 있다. 만일 우리가 하이데거의 사물에 대한 개념을 거주의 문제와 관련 짓는다면, 거주는 물질적 의미가 아니라, 거주의 의미를 사물의 모임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입장에서 서서, 사물의 세계를 받아들이는 것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겠다.

## 2.3. 실존공간의 구성요소

### (1) 영역

하이데거가 말하는 영역이라는 말속에는 방향 속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방향 속에 있는 어떤 사물의 圍域속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도구적 존재자가 차지하는 장소의 다양성이 이렇게 영역적으로 정위됨으로써, 환경 세계적으로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존재자의 환경성, 즉 그 같은 존재자가 가지고 있는 우리 주위의 환경이 구성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영역은 실존공간 내에서 통합된 기능으로서 나타나며, 인간의 환경은 중심과 길로 형상화된 확장된 영역으로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가 대지를 생각한다면 주로, 농토, 호수, 사막, 산, 바다 등이 연속되어 있는 영역들을 연상하게 된다. 그러나 영역이 갖고 있는 일반적 속성 때문에 이 영역은 인간의 행동에 대한 잠재적인 장소로서 기능한다. 따라서 정위는 중심과 길에 의해 영역으로 구체화되며 환경을 구조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 (2) 중심성

목적지 또는 중심은 실존공간의 기본적 구성요소로서 자리잡고

1)C. N. Schulz, Meaning and Place, Rizzoli, New York, 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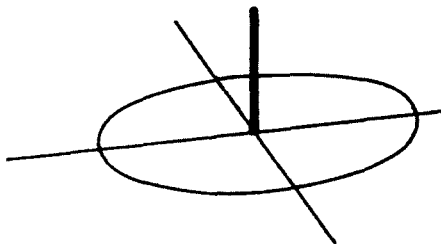
2)C. N. Schulz, The concept of dwelling, Rizzoli, New York, 1994

3)Phenomenology of Perception, M. Merleau-Ponty, Routledge & Kegan Paul, London, 1991, p.14

4)C. N. Schulz, 실존·공간·건축, 김광현역, 태림출판사, 1996, p.27

있으며, 구체적 인간의 삶은 항상 중심성과 연관되어져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세계의 축을 상징화했던 물신 숭배적인 막대기나 신성한 산이 그런 역할을 수행해 왔을 수도 있다. 우리는 항상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막대기를 가지고 다니는 유목민족을 알고 있다. 세계의 중심은 항상 그들이 존재하고 있는 곳에 있다고 믿었다. ...<중략>... 그리고 ‘중심성’과 ‘방향성’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의 기본구조는 여전히 타당하다. 무엇보다도 家庭은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그러한 가치들과 연관되어 있으며 우리에게 안전함을 보장해 준다. ‘가정’과 ‘도시’와 ‘국가’는 그러므로 내가 소위 ‘좀더 고차원적인 대상물’이라고 불렀던 것을 내포하는 것이다. : 즉 사회적 부속물과 문화적 산물로서.”<sup>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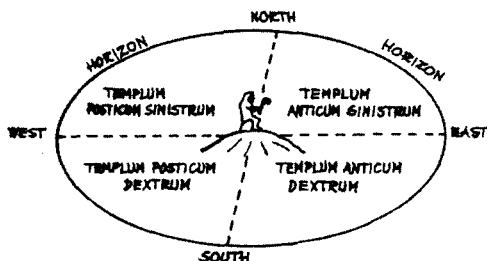
결국 이러한 중심성은 일반적으로 땅과 하늘을 잇는 수직적 세계의 축으로서 경험되어지는 것이며 그러기 때문에 수직성이 신성한 공간의 차원으로서 간주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인간의 삶은 땅위 하늘아래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수직은 긴장의 선으로서 경험되어 지기 때문이다.



<그림 2> C. N. Schulz, 實存空間의 中心性

(3) 축(통로)

축과 통로는 실존공간에 있어서 중심성을 보완하는 필수 요소로서 등장하고 있다. 왜냐하면 중심은 외부와 내부를 갖고 있으며, 도착과 출발의 행위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길을 차지함’ 또는 ‘도중에 서 있다’, ‘올바른 길’이라는 관용구적 표현에서 길은 실존적 중요성을 표현하고 있다고 슬츠는 지적하고 있다. 르코르뷔제는 “축은 가장 첫 번째 인간의 출발”이다. 어린이가 아장아장 걷는 것도 축을 따라 걸으며, 폭풍우 속을 걷는 사람도 축을 설정하여 걷는다.”라고 말하고 있다.<sup>6)</sup>



<그림 3> 實存空間의 構成要素

(4) 방향성

하이데거는 내존재의 공간성은 멀어짐의 탈취와 방향의 부여라는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하이데거가 말하는 현존재는 라디오라는 문명의 이기에 의해 일상적인 환경세계가 확대되어 상대적인 거리감이 축소되고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한 측면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라는 것은 발로 갈 수 있고 손으로도 잡을 수 있고 눈이 닿을 수 있는 평균적인 범위 안에서, 단지 상대적으로 멀어져 있는 곳에 숨겨져 있는 것일 뿐이다. 다시 말하면 안경을 낀 사람에게 있어서 안경은 그의 코 위에 있는 만큼 거리 상으로는 가까운 것이지만 사용 중에 있는 이 도구는 정면 벽에 있는 그림보다도 환경 세계적으로 생각할 때는 훨씬 멀어져 보일 수 있다.

결국 모든 사물들에 대한 방향성의 부여와 상호교섭을 통한 현존재의 내공간은 실존적 공간의 성립요소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슬츠가 쓴 실존, 공간, 건축에 보이는 방향성에 관한 글을 인용해 보기로 하자.

“장소의 개념은 내부와 외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과 또 실존적 공간에는 보통 수많은 장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하나의 장소는 보다 넓은 맥락 속에 위치되어지며 그것만을 별도로 이해 할 수는 없다. 만일 별도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인간의 역사에는 역동성이 없어져 버릴 것이다. 실제로 모든 장소는 방향을 갖고 있다.”<sup>7)</sup>

실존공간을 이루는 건축적 요소로서 방향성은 축과 통로(길)와 상보적 관계를 이루면서 출발점과 목적지를 암시하는 실존적 공간요소로서 특징지어진다.

<표 1> 實存空間의 構成原理

변증법적 통일	하늘	땅
구성방법	정체감	정위
구성특징	형태	공간적 질서
구성요소	유형학, 형태학, 위상학	중심, 길(통로), 영역(장소)

3. 풍수지리와 공간

3.1. 풍수지리의 개요

최근에 들어 이 풍수설의 그 기본원리는 “자연지세와 환경을 잘 분석 활용함으로써 인간생활의 복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대에 들어와서는 하나의 설계원리”<sup>8)</sup>로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풍수지리에 대한 정의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약간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건축학이나 민속학 그리고 여러 관심분야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내린 정의이기 때문이며, 자신의 관점에 따라 약간씩

7) C. N. Schulz, Meaning and Place, Rizzoli, New York, 1993, p.48

8) 風水地理의 局面이 갖는 建築的 想像力에 關한 考察, 장성준, 大韓建築學會論文集, 78.2, p.15

5) C. N. Schulz, Meaning and Place, Rizzoli, New York, 1993, p.18  
6) C. N. Schulz, The Concept of dwelling, Rizzoli, New York, 1995, p.21

상이함을 나타내고 있다. 그에 대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① 墓相과 家相으로 吉凶禍福을卜하는 미신
- ② 土地에 대하여 일종의 形而上學的인 신비영묘한 실재를 인정하여, 도읍, 관택, 능지의 땅을 복상하고 인간에 미치는 길흉화복의 영향을 논하는 일종의 관상학, 이때 그 실재란 천지만물을 생성하는 원리로서 길흉화복의 영향을 논하는 원리로서의 음양의 기
- ③ 風水의 기본 구성요소로는 山, 水, 方位의 세 가지이며, 그 본질은 천지의 생기를 지맥을 매개로 享受함으로써 인생의 행복을 구하는 것
- ④ 지형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으로 전통과학의 가장 중요한 부분
- ⑤ 대, 소, 우주론, 陰陽五行論, 12지간지설 등을 기초이론으로, 山龍, 得水, 藏風을 택지 선정의 기준요소로 하는 통시적 분석이 공식적에 앞서는 우리나라의 신앙,
- ⑥ 음양설을 기초로 하고, 나경을 필수물로, 實地에서는 용혈묘수를 구체적인 문제로 삼는 難知의 한국인의 思考
- ⑦ 지형에 따라 산수가 역하기도 하고 순하기도 해서 그 順逆의 이치를 잘 알아서 복리를 누리고 재앙을 피해야 된다는 說
- ⑧ 지세를 배경으로 靑龍, 白虎, 朱雀, 玄武의 思想을 다음에 水口, 野勢, 山形, 土色, 水理, 朝山朝水의 차례로 마을의 지리를 살펴보는 전통건축사상,
- ⑨ 땅의 기운을 얻어 인생의 행복을 누리고자 하는 사상에서 형성된 方術의 하나
- ⑩ 토지에 대하여 신비하고 영묘한 어떤 실재를 인정하고, 이것에 형태 이상의 형이상학적 이론을 결부시키는 것으로서, 그 토지 이용에 연관된 현실 세계의 길흉화복을 논하는 것<sup>9)</sup>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여러 사람이 내린 다양한 정의들이 존재하고 있다. 여기서는 ⑨번에 소개한 정의를 이론적 틀로 삼고자 한다.

### 3.2. 풍수의 국면이 갖는 공간적 의미

풍수론은 음양설과 오행설의 합인 음양오행설에서 원용한 생기론과 이 생기의 반응을 논한 감응론에 근거를 둔다. 풍수론은 생기를 입는 대상에 따라 陰氣風水와 陽氣風水로 나뉘며, 후자는 그 규모에 따라 개인양기, 도읍양기로 나눌 수 있다. 이들간에 근본적인 차이점은 없으며 다만 局面의 규모에 있어 상이점이 보일 뿐이다.

풍수는 藏風得水的 준말로서 생기가 바람에 의해 흩어짐을 막고 생기를 얻는다는 것을 뜻한다. 그 구성요소로서는 산, 수, 방위가 기본을 이룬다. 藏風은 산에 의하며 이를 龍이라 부른다. 이 용의 식별은 풍수에서 중요한 관건이 하나가 된다. 용에 의해 藏된 風과 生氣는 四神에 의해 龍穴에 모이게 된다. 사신묘는 穴을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는 것으로서 主山の 玄武, 前方의 山이나 水인 朱雀, 좌측산이 靑龍, 우측산인 白虎를 가리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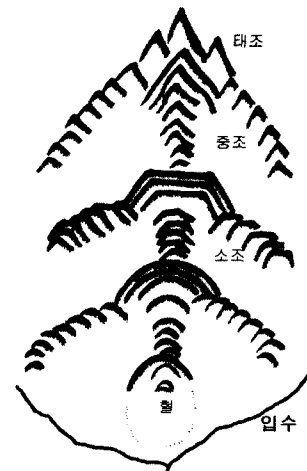
四神중에서 현무와 주작은 풍수의 形局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하며 각기 陽과 陰의 결합관계로 나타나고 있다. 龍과 虎는 풍수의 국면으로 볼 때 그 임무는 장풍에 있으므로 穴을 감싸고 호위해야 한다. 得水는 수주작에 의하며, 穴에 가까운 것을 內水, 먼 것을 外水라 한

9) 최창조, 한국의 풍수사상, 민음사, 1991, p.23 재인용

다. 내수는 겹으로 된 용, 호의 사이에서 흘러나와 前方에서 合水한후 국면 바깥으로 나가 外수에 합쳐진다. 풍수의 방위는 좌향으로 말하여지며, 이는 오행, 팔괘, 십간, 십이지를 결합한 것이다.

이러한 風水의 局面이 갖는 建築的空間은 결국 天·地·人의 변증법적 통합과정을 말한다. 풍수에서 山과 水는 단순한 자연현상으로서의 山과 水를 넘어서 形而上學的 體系의 象을 갖고 있다. 즉 山은 하늘을, 水는 땅을 의미하며 그러한 原形의 心象은 우리나라의 초기 건국신화<sup>10)</sup>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결국 風水地理에서 山·局·水는 天·人·地로 상징변환 된다. 즉 山과 水의 변증법적 동일에 의해 局이 形成된다고 말 할 수 있으며 또한 산과 수는 그 자체로는 생성을 이루지 못하고, 마치 天·人·地가 합하여 人을 생성하듯이 山과 水가 합해져야 氣가 成立하여 局面이 生成되는 것이다.

실제로 산이나 수는 사람이 거주할 만한 곳은 아니다. 즉 원초적인 天·人·地의 象이 山·水·氣의 象으로 변환을 이루고 山·水·氣가 山-水-局面이라는 形으로 나타난 것이 풍수지리의 局面인 셈이다. 이와 같은 상반된 兩極의 결합은 즉 양극을 제 3의 조건으로 변형시키는 원형적 심상을 용은 통합심상이라 설명하고 있다.



<그림 4> 혈의 발생과정

### 3.3. 국면을 이루는 구성요소

#### (1) 경계

風水地理의 局面이 갖는 뚜렷한 現象은 主山인 玄武, 左靑龍, 右白虎, 前朱雀의 四神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지역의 한정이다. 이 局面은 局面이 形成되지 못하였거나 형성인자가 되고 있는 주변으로부터 구별되며 연속된 공간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局面은 四神으로 경계되어지며 국면의 경계요소인 사신은 山과 水로 이루어지고 있다.

10) 우리나라 건국신화의 공통된 모티프는 天神과 水神의 神婚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군신화, 주몽신화, 신라의 혁거세 신화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1) 천신의 아들이 산에서 강림한다는 것 2) 천신에 대응하는 지모신이 자기본래의 존재에서 승화한다는 것 3) 강림한 천신과 승화된 지모신의 결합으로 시조가 탄생하며, 문화를 창조한다는 것, 결국 산과 수 양자가 상호 변신하여 융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열규, 한국의 신화, 일조각, 1992, p.56

이러한 境界要素의 하나를 케빈 린치(Kevin Lynch)는 Edge라고 부르고 앞에서 언급한 슬츠는 영역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풍수에서의 이러한 경계요소는 선적 요소인 통로(Path)와 같은 주도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성벽이나 강처럼 많은 사람에게는 종합하는 요소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면의 경계 요소인 四神은 日常性이 아닌 聖에 속하며 미지의 세계, 상상의 세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천상의 원형을 지닌 것으로 地上에 具現된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은 원초적이며 원형적인 순결성을 갖고 있어서 인공적인 Edge에 비해서는 절대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sup>11)</sup> 사신이 이루는 능선은 하늘 세계와 경계되며, 물은 지상세계와의 경계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곳에 흔히 성벽이 쌓여지며 지역간의 경계선으로 인식됨은 위와 같은 의미에서 타당성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신에 의해 둘러싸인 국면은 외부와는 대조적인 것으로서 더욱 충실한 내부로서 경험되어질 수 있다. 이러한 관계는 지각심리학에서 쓰이는 개념인 地(Ground)와 圖(Figure)로도 비교될 수 있다. 결국 사신은 규모, 형태, 폐쇄성등의 관점에서 도가 될 수 있으며, 지리적 전체성을 이루는 구실을 하고 있다. 무질서 한가운데 질서 있는 우주이며, 바로 이점에서 인간적 보편적 욕구의 한 표현이다.

(2) 중심성

局面이 갖는 空間的 位階는 穴이라는 中心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이 穴은 국면에서 핵이며 가장 內側에 위치한 동시에 모든 주위가 이를 위해 存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심을 갖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地形과는 근본적인 차이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곳은 세속적인 것이 아닌 聖에 속하는 中心이며 가장 높은 空間的 位階를 갖음을 뜻한다. 바로 이 穴의 앞에 明堂이 자리잡으며 陰宅인 경우는 穴은 墓, 명당은 묘판이 되며, 陽宅인 경우 穴은 主 건물, 명당은 前庭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位階는 중심과 주변의 관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시지각적 관점에서 본다면 인간의 공간은 주체를 축으로 하여 中心化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中心은 수많은 神話에서 垂直的 要素를 갖는 것으로서 나타난다.

“그리스 사람에게 있어 그러한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것은 델피(Delphi)의 아폴로(Apolo)신전에 있는 움팔로스(Omphalos)였으며, 왜냐하면 로마사람들은 세계의 중심(Caput mundi)을 옛 로마의 쥬피터 신전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sup>12)</sup>

결국 풍수의 局面이 갖는 空間的 의미는 하늘과 땅 사이에 인간을 매개로 하는 자연적 질서 속에 인위적 질서를 형성하는 건축적 공간인 것이다. 모든 사물은 이 中心의 상징에 참여함으로써 실재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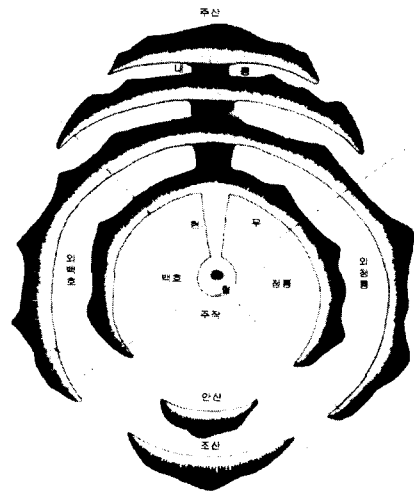
인 것으로 되듯이 풍수지리 국면의 穴 또한 명당에 참여함으로써 실존적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3) 축(통로)

풍수지리에서의 局面은 그 진입에 따라 通過祭儀인 結절점들과 이들로 이어지는 통로를 갖는다. 이러한 통로를 린치(K. Lynch)는 관찰자가 일상적으로 때때로 지나는, 혹은 지날 가능성이 있는 통로로서 정의한다. 또한 슬츠는 實存的 空間의 구현을 위해 축이 갖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축은 시각적으로 느끼며, 상상적으로 지나가는 것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空間을 조직화하는 이러한 軸線은 어떤 특정한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통로가운데의 수많은 요소들을 상호간에 통일하여 이들 要素를 전체로 합일시키려는 상징적 방향성을 나타낸다. 종종 이러한 통로가 축선과 一致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風水의 局面에 나타난 朝山-朝水-安山-內水-明堂-穴-眞山-祖山으로 이어지는 축선이 가장 명확한 상징적 통로인 것이다.

局面 내부의 명당 또는 穴 그리고 聖所에 진입함에 따른 현실의 통로와 그 結절점은 宗教的 심성에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통과제의의 상징적 경로이며 結節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림 5> 四神으로 둘러싸인 風水의 局面

(4) 방향성

방향성은 風水의 局面에서 坐向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좌향은 앉아서 바라본다는 뜻으로, 地形, 인공적 구조물, 심지어 나무같은 사물까지도 좌향을 지닌다고 말할 수 있다. 한 장소는 좌향을 가질 수 있으나 선호성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좌향은 한 가지뿐이다.

하나의 장소가 특정한 좌향을 갖기까지 검토되는 向은 絕對向과 相對向<sup>13)</sup>으로 구분되어질 수 있다. 절대향은 천체의 움직임, 특히

11)自然觀이 建築空間 構成에 미치는 影響에 관한 연구, 윤홍택, 建築學會論文集 23권 86호, 79. 2, p.24

12)C. N. Schulz, Meaning and Place, The place of Concept, Rizzoli, New York, 1994, p.26

13)윤홍택, 앞의논문, p.20

인간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태양의 운행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향으로서 시간성을 내포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절대향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절대적인 향을 의미하며 세속적이 아닌 종교적인 차원에 속한다. 여기서 언급하려고 하는 향은 상대향으로서 이는 대지에서 시작해서 인간세계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표 2> 실존공간과 풍수의 국면과의 상관성

區 分	實存 空間	局面的 建築空間
思想的 背景	西歐의 認識論	東洋의 自然觀
窮極的 指向	人間을 中心으로 한 辨證法的 空間	天地人의 調和된 相互感應의 空間
기본틀	하늘·인간·대지	천·지·인
構成要素	중심성·축·방향성	중심성·축·방향성

### 참고문헌

1. M. Heidegger, Being and Time(존재와 시간), 전양범옮김, 시간과 공간사, 1995
2. M. Gelven, 존재와 시간 입문서, 김성룡옮김, 시간과 공간사, 1994
3. C. N. Schulz, Existence space and Architecture(실존, 공간, 건축), 김광현옮김, 태림출판사, 1992
4. C. N. Schulz, The concept of dwelling, Rizzoli, New York, 1994
5. C. N. Schulz, Meaning and Place, Rizzoli, New York, 1993
6. 시간론, 김규영, 서강대 출판부, 1993
7. 한국의 신화, 김열규, 일조각, 1993
8. 한국건축사, 윤장섭, 동명사, 1990
9. 한국의 풍수사상, 최창조, 민음사, 1994
10. 自然觀이 建築空間 構成에 미치는 影響, 윤홍택, 大韓建築學會論文集, 1978. 2
11. 韓國 建築의 陽宅論에 관한 考察, 현두용, 大韓建築學會論文集, 1978. 2
12. 風水地理의 局面이 갖는 建築적 想像力에 관한 考察, 장성준, 大韓建築學會論文集, 1978. 2

<접수 : 2000. 10. 31>

## 4. 풍수의 국면과 실존공간이 갖는 공간의 의미

실존공간과 풍수의 국면이 갖는 건축 공간적 의미는 인간을 매개로 하늘과 대지 안에서 (하이데거의 개념으로는 세계-내-존재안에서) 유의미성의 공간을 형성하는데 있다. 즉 하늘과 인간과 대지(天·地·人)라는 환경성안에 중심성과 축과 방향성의 공간 구성요소를 갖고 인간을 중심으로 한 생명력 있는 공간의 창출에 그 의미와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실존공간에 대한 개념은 내용상의 난해함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으나 궁극적인 지향점은 풍수의 국면에서 읽혀질 수 있는 것과 같이 인간이 중심이 된 천상원형에의 회귀를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의 창출에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접근 방법론에서 실존공간과 풍수의 국면은 사물에 대한 관계, 즉 환경성을 이루는 사물들의 존재방식과 그것들과 교섭하는 방법상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실존공간에서 사물과의 관계 맺음이 주로 서구의 인식론을 토대로 인간을 중심으로 한 변증법적 공간이라면 풍수의 국면에서 이야기되는 방식은 동양의 관조적인 자연관에서 비롯된 天·地·人이 相互感應하는 공간임을 알 수 있다.

실존공간에서 말하는 세계-내-존재는 동양적 사고로 볼 때 하늘과 대지 안에 있는 森羅萬象을 뜻하는 것이며 그러한 사물(삼라만상)의 궁극적인 존재방식을 이해하고 그 바탕 위에 인간과 의미 있는 관계를 가질 때, 또한 그러한 바탕 위에 서서 인간이 거주공간(실존공간)을 가질 때 비로서 인간은 실존의 의미를 지닌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듯 풍수의 국면과 실존공간의 공간적 의미는 궁극적으로 배태된 動因은 서로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매개로 의미 있는 세계관을 지향하는 공간에 대한 인식은 양자간에 서로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